

AUTHOR 최덕성

TITLE 개혁주의 신학의 활력

IN 고려신학

vol.5 no.1 (December, 1995): 241-249

## 참 고 문 헌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0.
- Corey, Geral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기태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실제」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 Rogers, Carl 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42.
- Huntley, Charles B., *Pastoral Theology*. 박종렬역 「목회상담학」 서울 : 복된 말씀사, 1970.
- Rogers, Carl R.,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1.
- Rogers, Carl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 1951.
- Rogers, Carl R., *A Way of Being*.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0.
- 김병원, “목회상담에 있어서 성경적 방법론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제13집, 1985.
- 유형심, 「목회심리학」. 서울 :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 출판부, 1981.

[International Theological Congress 참석 및 활동보고서]

## 개혁주의 신학의 활력

최덕성

세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 활동을 펼친 「국제 신학자 대회」(International Theological Congress)가 지난해 6월 20일 부터 4박 5일간 화란 암스테르담 근교의 한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대규모의 학회 모임인 이번 대회는 “개혁신학의 활력”(The Vitality of Reformed Theology)이란 주제로 오대양 육대주 20개국으로부터 모인 110명의 학자들이 분야별 4편의 주제 강연, 20편의 논문발표 및 토론 등 학술 활동을 가졌다. 화란, 남아공 화국, 미국, 독일 등지로부터 다수가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손봉호 교수와 필자가 참여했다.

개혁신학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를 다각도로 논의한 이 대회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과 실존적 상황의 중재자로서의 신학자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학자다운 비판과 분석 그리고 문제 파악과 제안들로 진행되었으며, 현대 개혁주의 신학계의 동향과 현주소를 말해 주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 1. 개혁주의 신학과 활력

대회는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상호 대응 보충하면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개혁신학은 본래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점들을 재천명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파 다른 하나는 개혁신학이 오늘의 실존적 상황에서 어떤 활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

연 활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실존적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초점을 모았다.

이 대회가 “활력”(Vitality)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활력성이 문제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개혁주의 신학 전통 하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열심히 식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수적으로 증가하는 교회도 없지 않으나 그것마저도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낳는 생물학적인 혹은 자연적인 증가를 통해서라고 한다.

개혁주의 신학 전통은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교회가 처해있는 상황과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현장에서 적응력과 탁월성을 갖지 못하는 소의 “개혁주의 매너리즘”(Reformed mannerism)에 빠져있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었다. 따라서 우선 신학이라는 인간의 작업이 성경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그 권위를 재확인하는 일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응력 탁월성을 가질 수 있는 학문활동이 될 때 활력을 가질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종일관 강조된 바는 우리가 주지주의적 혹은 스콜라적인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회 연설을 한 캄펜신학교 교장 베링그 교수는 신학의 목적은 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는 일에 있으므로 개혁주의 신학이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삶에 파고들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동역자 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씨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는 대체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 2. 개혁주의 신학과 실존적 상황

이 대회는 네 개의 강의와 다수의 논문발표로 진행되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리차드 개핀 교수는 “개혁주의 교의학의 활력”이란 강의를 통해 개혁주의 교의학이 지닌 주지주의 혹은 합리주의적 경향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게하르트 보스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조직신학의 교재가 아니라 언약역사의 책이다.” 구속사는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다루되 그 초점은 현대의 상황을 재조명하는데 두어야 한다. 성경은 동양사상을 배경으로 삼은 데 비해 우리의 신학작업은 서양적 멘탈리티 즉 변증적 구조(dialectical mode) 속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성과 신앙, 이성과 계시의 관계에 대한 즐기친 관심을 가져온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더 이상 타락전예정설 - 타락후예정설과 같은 사변적인 신학작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 본문과 상황의 균형성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았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옹호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캄펜신학교의 벤 부르흐 교수의 틀에 박힌 접근 방법에 대해 화란 자유대학교의 철학교수 헤레츠마는 개혁주의 신학이 수직적 관심과 방어적 작업에만 심혈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신앙 지식의 수평성을 증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구약 저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역사적 상황에 적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실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구속사적 신학작업이 요청된다. 신학이 인간의 지적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즉 교회의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실존적 현장을 증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도, 신앙고백, 선교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스텔렌보쉬 대학의 용커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과 회중의 아이덴티

티에 관한 강의에서 교회는 지적 공동체가 아니라 전인적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학의 지나친 지적 작업은 회중에게 건조함을 가져다주고, 설교자로 하여금 외국어처럼 알아듣기 힘든 설교를 하게 만든다. 설교자나 신학자는 말씀과 회중의 중재자이며, 신학과 회중의 거리를 좁힐 때 개혁주의 신학의 활력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와 신학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신학교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정규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목회 현장의 살아있는 체험적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매마른 건초더미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학교수의 전문성이 단순히 신학 지식만을 전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교수 상호간의 정보교환, 교제, 교정, 나눔, 이해, 신뢰를 토대로 한 교수 공동체의 조성,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유지 등도 언급했다.

용커 교수의 강의에 대해 논평자인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대학의 그레함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령의 조명과 내적활동, 하나님과의 연합과 신앙의 내면적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칼빈주의의 합리주의적 전통은 자칫 청교도적 경건과 부흥운동 그리고 신앙의 내적인 요소를 도외시하기 쉽다.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가슴(heart)의 종교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이 “계속적으로 개혁되어 가는 신학”일 것을 천명했다.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의 기독교회의 위치”란 주제로 주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교회는 가난, 고통, 빈부, 질병 등 현대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므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도 하루 동안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비타민 A의 부족으로 맹인이 되어 가고 있다. 다수의 인구가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교는 영혼구원, 교회설립만이 아니라 사회봉사,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

국교회의 몰락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신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 대한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 3. 개혁주의 교회의 활력성

이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론,” “개혁주의 신학의 개혁,”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연구,” “시편과 개혁주의 영성,” “역사-비평 방법으로부터의 도피,” “구약율법의 활력,” “교회직분과 은사,” “교회직분의 위기” 등을 포함했고, 인도와 헝가리 교회를 소개하는 논문도 있었다. 남아 오렌지자유대학의 스트라우스 교수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사회의 형성”은 특이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필자는 “한국 개혁주의 전통의 아이덴티티”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방 후 한국교회의 갈등의 신학적 배경을 다루면서 공적 권징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사이의 갈등과 논쟁을 고려신학교의 박윤선 교수와 박형룡 교수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교회론의 입장에서 소개했다. 현재 남아개혁교회, 헝가리개혁교회, 폴란드교회, 러시아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방 후 한국교회가 직면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개혁주의 전통과 공적 참회 및 공적 권징의 중요성을 논했다. 교회의 순수성과 교백적 중요성은 개혁주의 신학의 활력을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밝혔다.

발표된 내용을 두고 2시간 반 동안 학자들의 질의와 필자의 응답 그리고 논의로 진행되었다. 반 브르혼 교수를 비롯한 다수학자들의 질문은 현대 개혁주의 교회의 활력에 초점을 모아 진행되었다. 학자들은 교회의 순수성과 권징과의 관계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공적권징과 한국

인의 권위주의, 서열의식, 수치문화 등의 관련성도 언급되었다. 마침 이 논문을 발표한 자리에는 두 그룹의 헝가리개혁교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이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헝가리개혁교회는 공산통치가 끝난 후 박해시 친공과 반공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학교도 둘로 나누어져 있다. 친공자들은 아직도 공적 참회를 실시한 바 없다. 발표가 끝났을 때 모 개혁주의계 신학 잡지사로부터 논문을 기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슈링가 교수는 “개혁주의 설교의 활력”이란 논문을 통해 개혁주의 설교가 논리적이고 지적인데 비해 대중적 호소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신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설교방법은 현장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 개혁주의 설교가 구속사적인 강해와 조직적이라는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사변적이고 건조하며 감동이 결여될 수 있다. 청중은 설교자만큼 지적이지 못하다. 설교자는 청중의 이해와 정서에 맞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그는 활력있는 설교의 한 방법으로 원고를 보지 않는 설교, 시각 언어 설교법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대해 몇몇 화란 신학자들은 “어떻게 원고를 보지 않는 설교가 가능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반문하고 매우 의아해 했다. 필자는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매번 원고에 적어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설교에 관한 논의에서 포체스트롬대학의 벤티 교수는 “우리의 설교가 청중의 지적인 욕구가 아니라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신자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초신자,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설교는 성경의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탁월성을 가진 방법으로 현장에 전달할 때 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신자들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 발전된 설교 스타일은 대중적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는 슈링가 교수의 견해와 일치했다.

개혁주의 전통성은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성경을 문법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여 정중하게 선포하면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일하시는가? 아니면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자동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도록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와 일치했다.

이 대회는 선언서를 채택하기로 계획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각 조별로 매일 선언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자타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고백적 내용들을 재천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모임은 몇 년 후 남아공화국에서 가지기로 했다.

#### 4. 개혁주의 신학의 미래

학자들의 논의는 개혁주의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을 재천명하면서도 개혁주의 신학 혹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자들 모두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며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되는 항구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주의 신학 원리의 성경적 기초와 타당성을 확신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대회는 개혁주의 신학이 어떤 고착된 틀에 갇혀있는 사상체계가 아니라 성경과 종교개혁 신학의 조망 아래 삶의 실존적 현장에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신학으로 거듭 발전해가는 혹은 개혁해 나가는 신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보수해야 할 것과 개혁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들은 “개혁주의”에 대한 나르시즘적인 맹목성이나 국수주의적 변론 혹은 모방성이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대회가 신학과 교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현장성, 탁월성, 적응력을 가질 수 있는 신학교육의 개선책도 논의되었다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란이나 남아의 개혁교회처럼 동질문화 공동체가 아닌, 즉 문화구조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탁월성을 지닐 수 있으며, 한 문화권에서 발전된 신학이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질 때 그 적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도 빈약했다. “교회성장”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도 특이했다. 세계 최대의 보수적 개혁주의 교회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여러 장로교단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대회장 주변은 거대한 튜올립 농장이었다. 국토의 1/4이상이 바다보다 낮은 지대이며 많은 바람과 모래밭 토양이라는 악조건을 가진 화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원예국가, 부강한 낙농국가를 일으켰다. “신은 세계를 만들었으나 화란인은 화란을 만들었다”는 말이있다. 화란의 성공은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한 생명을 건 몸부림의 결과였다. 이를 위해 튜올립을 비롯한 매혹적인 원예작물을 생산해 내고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소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전문인을 배출했으며,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높이 사고 그것을 상품화했던 것이다. 화란의 성공은 활력을 잃은 세계도처의 개혁주의 교회들과 신학자들을

향해 응변적인 교훈을 주고 있었다. 하나님은 개혁주의 교회들의 활력을 원하시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자들의 줄기찬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